

영광군, 쏜군민 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정부 지원금과 별개 12일부터 1개월간 신청 가능 '영광사랑카드' 원칙 70세 이상만 희망시 '상품권'

영광군이 정부 재난지원금 외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체 2차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영광군은 4일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1인 당 10만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인 9월 30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과 외국인 관내 체류등록자 중 결혼이민자·영주체류자다. 지급 방식은 '영광사랑카드'로 지원한다. 다만 만 70세 이상 세대주 중 본인 희망시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지급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에게 위임을 받

은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동거인은 별도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로 '영광사랑카드'를 스마트폰 앱 '그리고'에 등록한 세대주는 현장 방문 없이 영광군 홈페이지 및 '그리고'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나머지 세대주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만 70세 이상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오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사용 기간은 2022년 1월 31일까지다. '영광사랑카드'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중지 신청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수료 2천원 부담 후 재발급 신청하면 된다. 김준성 군수는 "지난 2년여간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묵묵히 동참해준 모든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올해 상반기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 당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영광=김동규기자



농촌 일손 부족 해결 방안 모색

영암군 농정혁신위 농업정책분과 3차 회의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농업정책분과는 최근 영암군 농업인센터에서 지역 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2분기 회의 결과 주제 제로 선정된 농촌인력 문제에 집중해 '농촌 일손부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농촌 현실과 인력 육성 추진 방향, 향후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인력 부족 문제가 최근 농촌의 화두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정책분과 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분과회의에서는 어려워진 농촌 현실, 군정 주요 농정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관내 농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력지원센터 활성화 및 기관·학교·사회봉사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 일손돕기 방안과 더불어 소

규모 농가에 임대사업 확대 추진도 관심을 모았다. 이날 논의하지 못한 농촌 인력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경우 '농촌 미래인력 육성'과 '인력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4분기 회의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은 "혁신위원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 분과 회의에서 개진된 의견들과 향후 논의되는 내용이 농정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분과)는 정책 수혜자인 농업인과 행정이 협치하는 농정 거버넌스 협의체다. 농촌 지원사업, 농촌관광, 농업기술, 산림·수산 등 다양한 농촌 정책을 수시 논의하고 정책 방향 수립 및 문제 해결점을 찾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협업체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영암=이봉영기자

해남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개시

해남군은 4일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1만4천52t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40kg 포대 기준 35만1천295가마로, 건조벼 28만395가마, 산물벼 7만900가마다. 해남군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전남 22개 시·군 중 최대 물량이다. 일반 배정량을 포함해 친환경 벼 및 해외공여용 미곡 등 전년 대비 16% 증가한 1천972t(4만9천305가마/40kg)의 매입 물량을 추가 확보했다. 산물벼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건조벼는 12월 31일까지 매입하며 공공비축미곡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중간정산금은 40kg 포대당 3만원으로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새일미 품종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 품종 외 수매를 막기 위해 품종검정제가 시행된다. 품종검정제는 매입 대상 농가 중 5%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DNA)을 실시, 매입 대상 품종인 새청무와 새일미 외 품종이 20% 이상 혼입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남=박필용기자



진도 서망항이 가을 꽃게로 붐어하고 있다. 최근 서망항의 하루 꽃게 위판량은 3~5t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 서망항, 제철 '가을 꽃게' 풍어

하루 위판량 3~5t...지역 경제 효과 역할 톡톡

진도 앞바다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어선들이 앞다퉈 가을 꽃게 조업에 나서 지역 경제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는 매일 40여척이 출어해 해당 200kg을 잡아 하루 위판량 3~5t을 올리는 등 서망항이 가을 꽃게로 풍어를 이루고 있다. 진도군 조도면 외병·독거도 일원에서 끌어 올리는 그물마다 제철을 만난 꽃게로 가득하다. 진도군통발협회 김영서 어민은 "해마

다 가을이 되면 진도 앞바다는 가을 꽃게가 풍어를 이루고 있다"며 "오는 10월 중순부터 더 많은 양의 꽃게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 꽃게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진도군수협을 통해 위판된 진도산 꽃게는 다른 지역보다 상품성이 좋아 현재 kg당 수협 경매 가격이 1만5천~1만6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냉수대가 형성돼 플라크톤 등 먹이가 풍부한 진도 조도면 해역은 갯바위 모래층으로 꽃게 서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

고 있다. 또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해역이다. 특히 진도군이 2004년부터 바다 모래채취를 금지하면서 꽃게 서식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됐으며 매년 1억원 이상 꽃게 치어를 지속 방류하고 있다. 살이 통통하게 올라 미식가들의 식욕을 한껏 자극하는 진도 가을 꽃게는 꽃게젓과 탕, 간장 게장 등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다. 진도군수협 관계자는 "가을철 진도 꽃게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박세권기자

무안군,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 완료

무안군은 4일 "고품질 쌀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본격적인 벼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의 이송·저장 라인과 제품생산 기반시설 등 개보수를 마무리했다.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사업은 총사업비 4억원(군비 70%, 자부담 30%)을 투입해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산 군수는 "앞으로도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해 무안 쌀이 전국 대표 브랜드 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최옥수기자

목포 시내버스 운영 최적 대안 찾는다

공론화토, 시민 의견 수렴·공정 의사결정 강조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가 목포시에 맞는 최적의 대안 마련과 공정한 의사 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론화위는 지난 1일 목포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개최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버스 운영체계 공론화 논의 과정 등을 설명했다. 목포시에서는 김형석 안진도시건설국장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공론화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이용객 급감으로 운송 수입금이 감소해 현재 버스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공론화위는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올해 4차 추경에 편성한 20억원에 대해 공

론화위는 "효율적인 대안이 나오기까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성한 예산"이라며 "예산 전액을 근로자 임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도록 목포시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등 모든 방안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특정 대안에 편중되지 않고 목포 지역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가 설정한 대안은 시민토론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목포시에 제출된다. 정기영 목포시내버스공론화위원장은 "위원들의 힘을 모아 공론화위가 공정한 의사 결정 기구로 시민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